

3. 最近 中國의 臺灣 侵攻說

- (發生 背景) 李登輝 臺灣 총통의 訪美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이번 사건은 그동안 中國을 자극해 왔던 美國과 臺灣의 태도에 의해 발단
- (中國의 意圖) 中國의 무력 시위는 臺灣과 美國에 대해 경고의 의미를 띠고 있으며, 나아가 東亞細亞 지역내 영향력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음
- (影響) 이 사건이 周邊國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나, 中國의 행동에 자극을 받은 東南亞 國家와 日本에게는 군비 확장의 자극제가 될 것임

臺灣에 대한 무력 침공 위협은 과거에도 있었으나 이번이 보다 위협적임

○ 中國의 對臺灣 武力 示威

- 최근 中國은 臺灣에 대한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
 - 中國은 지난 7월이후부터 臺灣 주변 해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음
- 臺灣에 대한 中國의 무력 침공 위협은 과거 臺灣 내부에 독립의 움직임이 드러날 때마다 있어 왔음

근본 원인은 美國側의 태도에 있으나, 리 총통의 訪美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음

○ 問題 發生 背景

-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美國과 中國간의 마찰에 있음
 - 舊蘇聯 붕괴이후 정치·경제적으로 성장하는 中國에 대한 美國側의 견제(臺灣 카드, 인권 문제 등의 활용)
 - 특히 최근 東亞細亞 지역내 인도차이나반도(베트남과의 수교), 臺灣(리 총통의 訪美), 日本, 韓半島(北韓과의 관계 개선)로 이어지는 對中國 封鎖 政策 가능성에 대한 中國側의 대응
- 특히 리명웨이(李登輝) 臺灣 총통의 美國 방문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됨
 - 이 사건으로 中國側은 美國이 두개의 中國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의심
 - 美國側은 이 같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의 中國 추구라는 對中 정책의 불변을 누차 강조함
- 中國 공산당내 고위층, 특히 장아이핑(張愛萍) 등

軍部 元老들의 강경한 태도

- 臺灣 내부에 지속되고 있는 독립 움직임과 臺灣 정부의 실리 외교에 대한 대응
- 리명웨이 총통의 美國 방문을 계기로 對美 관계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왔던 데 대한 반성과 그 반작용으로 고위층내 對美 강공책 기류 형성
- 中國 내부 자료에 의하면 江澤民은 이미 미사일 훈련 사건과 관련 사전에 덩샤오핑(鄧小平)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

臺灣의 對內外的인 행동과 美國에 대한 경고 및 東亞細亞내 입지 강화에 목적

○ 中國側의 意圖

- 최근 美中 관계의 악화에 따른 돌파구 마련
 - 이번 사건은 표면상 對臺灣 문제에 국한된 것 같으나 對美 관계에도 비중을 두고 있음
- 향후 東亞細亞 지역내 中國의 입지 강화를 위한 사전 포석
 -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, 군사, 경제적으로 성장한 자신의 현 위치를 周邊國(美國 포함)에 주지시키려는 의도
- 臺灣 내부 독립 움직임에 대한 경고
 - 지난 70년대 후반부터 臺灣 내부 일각에서 진행되어 온 독립 운동에 쐐기를 박는데 목적
- 외환보유고 1천억 불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는 臺灣에 대한 경고
 - 근래 들어 臺灣은 아프리카 및 중남미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를 달성했으며, UN 재가입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
 - 一國兩制(한 나라내에 두가지 제도를 인정하면서 통일로 나아간다는 中國측의 통일 구상)에 대한 의지 천명

○ 戰爭 可能性 與否

- 현 상황에서 中國의 對臺灣 침공 가능성은 높지

이번 사건은 軍事的 目的보다 政治的 目的이 강한 일종의 示威性 조치임

않은 것으로 분석됨. 이번 사건은 軍事的 目的보다 政治的 目的이 강한 示威性 조치로 판단됨

- 성공적인 改革·開放 政策 수행에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中國으로서는 안정된 주변 환경이 필수적임. 따라서 스스로 안정을 깨뜨리는 행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
- 東亞細亞 지역내에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中國은 周邊國의 협조가 필수적임. 따라서 이번 사건이 확대되어 周邊國을 위협하는 행위로 비춰지는 것을 원치 않음
- 과거와 달리 현 中國은 이미 국제사회와 정치·경제적으로 맞물려 있어 돌발적인 행동을 취하기에 제약을 받고 있음

이 사건은 東南亞 國家들과 日本에게 군비 확충을 위한 자극제가 되고 있음

○ 周邊國에 미치는 影響

- 이 사건이 周邊國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 그러나 中國의 군사력 확대를 경계하는 東南亞 國家들과 석유 수송로 확보를 위한 日本에 대해 군비 확충의 자극제가 될 것임
 - 최근 東南亞國家聯合(아세안)은 美國과 수교한 베트남을 가입시켜 對中國 공동 전선을 구축함
- 만약 戰爭이 勃發할 경우, 그 영향은 東亞細亞 지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미칠 것임
 - 경제적으로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(금년 상반기 중 中國, 홍콩, 臺灣 등 소위 中華圈에 대해 113억 달러의 수출 실적) 상실과 항공·해상 수송로 단절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나, 반면 中華圈의 대외 수출 물량 일부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음
- 이번 사건을 향후 東亞細亞 지역에 대한 美國과 中國의 의도를 파악, 우리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임

(김 정 균)